



## 정부 사업 보고

### — 2025년 3월 5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강

대표 여러분 :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 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시 바란다. 집행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하기 위하여 주시기 바란다.

#### 1.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발전로정을 걸어왔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회의에서 개혁을 기일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공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애국열정과 분투정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지난 1년간 외부압력이 증대하고 내부 어려움이 더해지는 복잡하고도 준엄한 정세에 직면하여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분발 정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연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주요 목표와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였다.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신질 생산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력, 종합적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공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발견을 합쳐 내디뎠다. 이는 새시대 새 로징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갈 우리의 결의와 자신감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주었다.

'안정'정세가 공고해지고 지속되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구현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총생산이 5% 성장하여 134조 9000억원에 이르

렀고 성장속도가 세계 주요 경제체 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에 달하였다. 취업, 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256만명을 기록하고 도시 조사 실업률이 평균 5.1%에 머물렀으며 소비자물가가 0.2% 상승하였다. 국제 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시장 점유율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높아졌으며 외환보유액이 3조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민생이 든든하게 보장되었다.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제로 5.1% 증대하였고 빈곤퇴치 난관들과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확대되었으며 의무교육, 기본양로, 기본의료, 사회구조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 중점분야의 위험이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하였다.

'성장'의 발견음이 견실하고 힘찼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구현되고 있다. 산업승급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식량생산량이 처음으로 1조 4000억근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무당 수확도가 10.1% 높아졌다. 첨단기술제조업, 장비제조업의 증가치가 각각 8.9%, 7.7% 증가하였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연간 생산량이 1300만대를 돌파하였다.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상무 서비스업의 증가치가 각각 10.9%, 10.4% 증가하였다. 혁신능력이 향상되었다. 집적회로, 인공지능, 방사광기술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상아 6호'가 인류 최초 달 뒤면에 착륙하여 표본을 채취하고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몽상'호 대양시추선이 건조되어 함대에 정식 편입되었다. 기술계약거래액이 11.2% 증가하였다. 생태환경의 질이 개선되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PM2.5) 평균농도가 2.7% 낮아졌으며 우량일 비율이 87.2%로 높아졌다. 지표수 우량 수질 단면의 비율이 90.4%로 상승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율 감소율이 3%를 웃돌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신규 발전설비용량이 3억 7000만킬로와트에 달하였다. 개혁개방에서 돌파를 가져왔다.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의 개혁포치가 착실하면서도 힘있게 실시되고 기구개혁이 전면적으로 완수되었다. 전국에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고 법정정년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등 중대한 개혁 조치를 련이어 내놓았다. 제조업분야의 외자접근 규제조치가 전부 취소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무역투자 협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격상되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누적되었던 일부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사회심리가 부진한 등 문제가 겹쳐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침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존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거시적 조정을 적시에 최적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는 9월 26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과당성 있게 포치한 일련의 중량정책을 결연히 관철 실시하여 경기의 뚜렷한 회복과 사회 심리의 효과적인 진전을 추진함으로써 연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발전에 량호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 과정에 우리

는 경제사업에 대한 합법적 인식을 심화하고 당중앙의 집중적 통일령도는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담보로서 반드시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 총공급과 총수요, 신성장원동력의 육성과 구성원동력의 갱신, 증가량의 최적화와 기존량의 활성화, 품질 향상과 총량 확대간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였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넘어서지 못할 고비가 없다는 것을 실천이 다시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며 당의 령도를 정부사업의 여러 면,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였으며 당중앙의 결결과 포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시기와 정세에 따라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하여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보이도록 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는 1.4분기에 좋은 발단을 가져왔으나 국내외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2.4분기에 접어들어서부터는 주요지표가 련이어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하강 압력이 증대하였다. 이에 우리는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뚜렷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목적성이 있게 시책하고 기존정책과 증량정책의 실행을 바짝 틀어쥐어 수요의 빠른 회복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심리가 뚜렷이 개선되었으며 초기의 고속성장에서 중기의 저속성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운

행이 후기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정통화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지출규모를 확대하고 중점분야의 재력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예금지급 준비비율과 정책금리를 두차례 하향 조정하여 사회용자 비용을 한층 더 절감시켰다. 유효수요의 확대를 둘러싸고 국가 중대 전략의 실시와 중점영역 안전보장 능력의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설비건설과 소비품 보장교환판매를 실속있게 지원하여 설비구입 투자가 15.7% 증가하고 가전제품류 상품의 소매액이 12.3% 증가하였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추진하였다. 주택대출금리와 선수금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 기존주택 대출금리의 연간 지출을 약 1500억원 절감하였으며 거래단계의 세금비용 수준을 인하고 상품주택 인도 보장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자본시장을 적극 안정시켰다. 기초적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주식환매 및 증자를 위한 재대출 등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하였다. 기준의 잠재적 채무규모로 지방특별채무 한도액을 일차적으로 6조원 늘였으며 지방 중소기업기구의 개혁과 위험해소를 안정하게 추진하였다.

둘째로,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발전의 내적동력을 증강하였다. 전국에서 통일된 시장을 방해하는 규정과 관행을 정리, 철폐하고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방의 투자유치를 규범화하는 조치를 내왔다.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경제의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민영경제촉진법 조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민영경제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였다.

▶ 3면으로

## 연길 부르하통하에 보행다리 건설 ... 음악분수까지



▲ 연길 부르하통하 경관보행교 효과도

3월 18일, 연길시 부르하통하 도시구역 수리종합정비공사(경관보행교)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공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신민교와 천지교 구간에 위치해있는데 구간의 총길이는 2.1킬로미터이고 하천의 평균 너비는 265미터이다. 량안에는 만달광장상권, 홍콩호텔, 빈하공원 및 여러 주택단지 등이 있다.

연길시수리국은 량안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고 하천의 물 경관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달광장 인근에 경관보행교 및 음악분수를 건설할 계획인데 총투자액이 약 4,000만위안이다. 경관보행교의 교량 총길이는 627미터로 그중 A선 교량 길이가 315미터, B선 교량 길이가 312미터이다. 표준 교량 너비는 4미터로 면적이 약 3,300평방미터이다. 음악분수의 설계 길이는 128미터, 너비 20미터, 최고 분출 높이는 88미터이다.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는 "현재 다음 단계의 공사에 대비해 기초작업 및 시공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경관보

행교는 형태가 참신하고 독특하다. 6월말에 교량 주체가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연길시수리국 부국장 우흥국(于兴国)은 "올해 연길시수리국은 '연길 록화미화' 행동을 도시 홍수방지와 생태환경보호, 공공시설 건설 등 핵심사업과 긴밀히 결합시켜 친환경적이고 생태친화적이며 살기 좋은 수역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6,530만위를 투자하여 경관보행교를 건설하고 부르하통하 인조 달리기 길을 깔며 하천 제방의 록화작업을 하는 등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창문만 열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고 물을 마주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빈하경제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조명쇼와 수상스포츠 등 새로운 업태를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고 생태명명 건설의 모범지역을 수립하며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생동한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다. /오건지

## 한국, 3분기에 중국 단체관광객에 단계적 비자 면제 시행

3월 20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분기에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단계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

하고 민생경제검토회의를 주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주한 중국대사 대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함

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이 크게 편리해졌으며 한국 사회각계의 환영과 호응을 받았다."면서 "중한 양측이 편리화 조치를 내림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빈번한 왕래와 친밀도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표명했다. /신화사



3월, 길림대지의 병설이 점차 녹으면서 곳곳에서 봄날의 생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지 농민들은 올해 농사 시기를 다잡고 농사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길림시 풍만구 왕기진 소석촌의 립춘농기구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새해 농사 준비를 위한 농기구 제작에 한창이다. 종업원들의 능숙한 조작을 거쳐 새롭게 제작된 농기구들은 논으로, 밭으로 나가 농민들의 농사일을 도움으로써 길림지역의 봄철 농사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길림일보

